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교육건설팅학과

김 다 연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지도교수 천성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교육컨설팅학과

김 다 연

김다연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25일



목 차

표 목차	iii
그림 목차	iv
Abstract	v
I. 서 론	0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1
2. 연구 문제	07
3. 용어의 정의	08
II. 이론적 배경	10
1. 내면화된 수치심	10
2. 거부민감성	12
3. 정서표현양가성	14
4. 대인관계문제	16
5. 관련 변인 간의 관계	19
III. 방 법	25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5
2. 측정도구	26
3. 자료분석	30

IV. 결 과	32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32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33
3. 측정모형 검증	35
4. 구조모형 검증	38
5.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40
V. 논 의	43
참고문헌	49
국문초록	62
부록	63
1.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63
2. 거부민감성 척도	65
3.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67
4. 대인관계문제 척도	69

표 목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6
표 2.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7
표 3. 거부민감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8
표 4. 정서표현양가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9
표 5.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30
표 6.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32
표 7.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34
표 8.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35
표 9.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36
표 10.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38
표 11.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치	39
표 1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효과 분해 결과	40
표 13.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42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07
그림 2. 측정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37
그림 3.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39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ized Shame of College Students
and Interpersonal Problems,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Da Yeon Kim

Department of Educational Consulting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Seong Moon Cheon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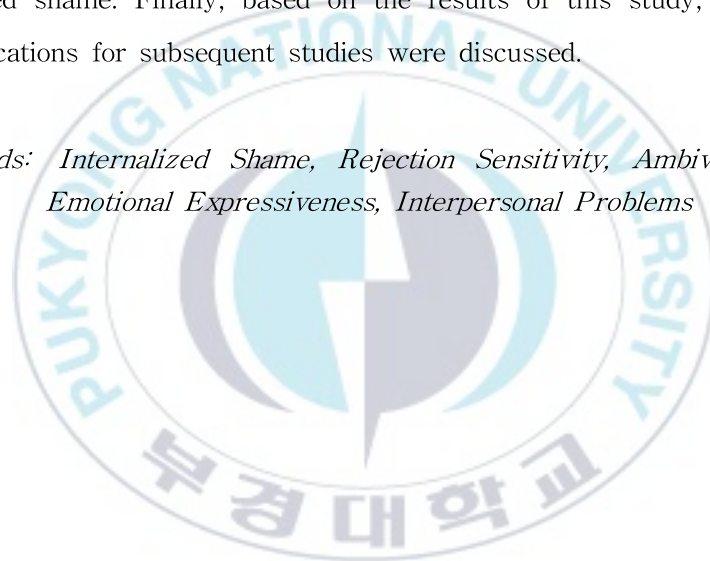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To this end, 304 college students located in four cities and provinces of Busan, Ulsan, Gyeongsangnam-do, and Seoul were conducted, and 292 online questionnaires were used, excluding 12 copies that responded insincerely.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using SPSS 25.0 and AMOS 20.0,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confirm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of the two-step approach of the structural eq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rnalized shame, rejection sensit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all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Second, it was found that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Third, it was found that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personal problems should be improved through interventions such as counseling skills and training to alleviate the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f college students with internalized shame. This study will help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to reduce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with internalized shame.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Internalized Shame, Rejection Sensit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terpersonal Problems



I. 서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 문제와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 시기는 타인과 친밀감 형성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Erikson, 1980). 그러나 대학 진학 이후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의 폭과 질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근 국내 대학 상담 기관의 자료를 살펴보면,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걱정거리 중 대인관계문제(28.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19). 이러한 조사 결과는 대학생들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대인관계문제를 겪는 대학생들은 동료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행동을 쉽게 하고, 이로 인해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심각한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Robert, Gotlib, & Kassel, 1996). 또한, 대인관계의 부적응은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이후의 직장생활과 성인기의 사회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황예은, 이지민, 2020).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문제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들로 인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 Villasenor, 1988).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인애착(이동욱, 2015), 거부민감성(정소현, 2018), 부모양육태도(김미나, 2019), 정서표현양가성(장주혜, 2019), 자기비난(김재윤, 2019), 내면화된 수치심(이예진, 2021) 등이 연구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정적인 정서로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이며(남기숙, 2002),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는 대인관계와 관련한 이차적 정서인 우울, 분노, 무력감 등을 호소하는데, 상담자는 그 기저에 있는 강한 감정인 수치심을 놓치기가 쉽다고 하였다(안봉화,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인관계에서 불편감을 유발하는 부정 정서 중 하나인 내면화된 수치심에 주목하고자 한다.

내면화된 수치심이란 수치심이 정체감에 내면화되어 자신에 대한 열등감, 부적절감, 부족감을 유발하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정서를 의미한다(Cook, 2001). 내면화된 수치심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에서 거절 또는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경험했을 때 형성되는 것으로(Cook, 1991),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경험되기 때문에 다양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aufman, 200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대인관계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윤경, 현명호, 2020).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인관계문제는 수동공격, 행동화, 투사, 억압, 회피 등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투사하고 비난하게 됨으로써 대인관계문제를 일으키게 된다(이지연, 2008). 이외에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등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철회하는 행동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즉, 내면화된 수치심은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는 변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육 초기에 형성되어 성격적으로 굳어진 내면화된 수치심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Cook, 1987), 상담 장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내담자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관찰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특성이 있다(Goss, Gilbert, & Allan, 1994). 이렇게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거부민감성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를 항상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Feldman & Downey, 199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깊게 자리 잡은 개인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의 부족과 거부감으로 인해 타인에게 거부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적 형태로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밝혔다(김현진, 2017).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이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장하진, 2021),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거부당할까봐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의도를 왜곡하여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김윤지, 2020; 박현지, 2012).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개인일수록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으며(최혜경, 2019),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거부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연, 성태훈, 김지혜, 신민영,

201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안선경, 2016).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예은, 2018; 이시형, 2018). 즉,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거부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더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느낄 때마다 수치심을 먼저 경험하므로 자신의 진솔한 정서를 표현하거나 느끼길 어려워한다(김민경, 현명호, 2013). 또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이지연, 2008). 즉,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와 자신을 보호하고자 정서를 표현하길 원치 않는 욕구가 동시에 생겨 두 욕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을 의미한다(King & Emmons, 199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능력 및 외적인 표현성이 유의미하게 낮으며, 정서표현양가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연, 2008).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참 자기와 거짓 자기를 발생시켜 자기의 통합성을 상실시키며, 이러한 이중성은 정서표현양가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현명호, 2013).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다혜, 2017; 민지현, 이아라, 2016; 지서현, 2016). 정서표현양가성이 높

을수록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이 밝혀졌고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구승희, 2011).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권다운, 2015). 즉,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으로 인해 더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양가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거절을 두려워하여 정서를 쉽게 외부로 표출하지 못하고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져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경, 2016).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은 거부민감성을 지닌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김영환, 2019). 이외에도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정서표현양가성도 높아지는 정적 상관을 확인할 수 있다(박선미, 2017; 정지혜, 정남운, 2015; 허예원, 2020). 즉,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의 갈등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주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내면화된 수치심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타인의 평가와 거부당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거부당할까봐 자신의 솔직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

을 겪게 된다. 이렇게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느낄수록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인 대처를 많이 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에 방해를 받아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았을 때,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및 정서표현양가성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본 선행연구(김예은, 2018; 이시형, 2018)와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본 선행연구(권다은, 2015)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각각의 매개효과를 보는 등 부분적 경로만을 살펴보았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문제의 네 개의 변인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대학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경로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대인관계문제를 겪는 대학생들에게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을 중심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하는가?

연구 문제 3.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위의 연구 문제를 기초로 한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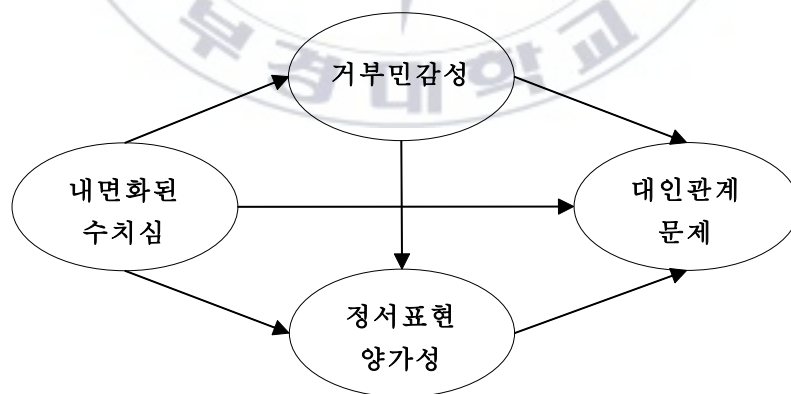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가. 내면화된 수치심

내면화된 수치심이란 수치심이 정체감에 내면화되어 자신에 대한 열등감, 부적절감, 부족감을 유발하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정서로 정의한다 (Cook, 2001).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Cook(1987)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나.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를 항상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으로 정의한다(Feldman & Downey, 1994).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은 박명진과 양난미(2017)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및 타당화한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다.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King & Emmons, 1990).

본 연구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은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라.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Horowitz et al., 1988).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문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를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재구성한 대인관계 원형척도를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와 진유경(2002)이 표준화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단축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변인에 대한 개념, 선행연구,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 내면화된 수치심

가. 내면화된 수치심의 개념

내면화된 수치심이란 수치심이 정체감에 내면화되어 자신에 대한 열등감, 부적절감, 부족감을 유발하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정서를 의미한다(Cook, 2001).

내면화된 수치심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수치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치심이란, 자기 스스로를 결함이 있고 부적절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자기가 문제시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의미한다(Lewis, 1971). 수치심은 크게 ‘상태 수치심(state shame)’과 ‘특질 수치심(trait shame)’으로 나누어지는데, 상태 수치심은 특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반응으로 상황이 종료되면 사라지게 된다(Goss, Gilbert, & Allan, 1994). 그러나 특질 수치심은 특정한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자신의 존재를 부적절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Goss, Gilbert, & Allan, 1994).

Cook(2001)은 이러한 계속적이고 만성적인 특징을 가진 특질 수치심을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이라고 표현하면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수치심이 정체감에 내면화되어 자신에 대한 열등감, 부적절감 및 부족

감을 유발하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정서'라고 정의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은 수치심이 유발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경험하는 개인 내면의 성격적인 특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인숙, 최해림, 2005).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Cook(2001)이 정의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개념을 사용하여, 수치심이 정체감에 내면화되어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과 부족감을 유발하는 만성적인 정서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내면화된 수치심의 선행연구

내면화된 수치심은 외로움, 대인관계문제, 애착 등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연구되어왔다. 먼저 어머니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자기에적인 몰입과 평가에 대한 예민성을 보이며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연애훈계 등 중요한 관계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느끼는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이를 내적으로 쌓아둔 결과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부정정서를 느끼게 되고, 회피성향이 커짐으로써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김남연, 양난미, 2012). 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으면 자신의 신체, 성격, 능력, 통제감, 가치관 등의 결함과 갈등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현, 2014).

이외에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평가염려 완벽주의, 정서표현양가성, 경험적 회피를 매개하여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재호, 2017). 내면화된 수치심이 우울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 송미경, 2015). 내면화된 수치심은 폭식행동

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으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아져서 폭식행동을 빈번하게 보이고,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인숙, 현명호, 2006). 내면화된 수치심이 지연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학습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와 자기비난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 학업장면에서의 지연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재옥, 2017).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은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하여 자기은폐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강지현, 2018).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은 주로 대인관계 관련 변인과 함께 연구되어 왔으며, 개인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변인임을 알 수 있다.

2. 거부민감성

가. 거부민감성의 개념

거부민감성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를 항상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Feldman & Downey, 1994). 거부민감성은 Feldman과 Downey(1994)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개념으로써 개인마다 거부 경험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 다를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거부민감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먼저 거부민감성은 양육초기에 반복적으로 거부를 경험하면, 이후 주요 타인

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될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발달시키고 불안해한다고 하였다(Bowlby, 1980). 이에 거부민감성을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를 경험하게 된 경우 이후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릇된 거부기대를 가지고 불안해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Bowlby, 1980). 이외에도 거부민감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거부를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차이로 정서적 불편감을 심하게 느끼며 강한 예기불안이나 분노 등을 형성하는 성향(Levy, Ayduk, & Downey, 2001)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을 Feldman과 Downey(1994)가 정의한 거부민감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대인관계에서 거부되는 것에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거부를 항상 지각하며, 거부당하는 것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적, 정서적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거부민감성의 선행연구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우울(류혜라, 박기환, 2014; 박민숙, 2014), 대인관계 및 대인불안(김향선, 이영순, 2011)의 심리적인 문제가 높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또래관계문제 및 또래괴롭힘(김선미, 홍상황, 2014; 전해련, 이지연, 2014) 경험도 증가하였다. 반면,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친밀감이나 자기노출(박혜련, 손은정, 2012), 심리적 안녕감(김정희, 이지연, 2010), 정서인식과 조절능력(김선미, 홍상황, 2014; 장미희, 이지연, 2011)은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수용전략과 타인 비난이 중재효과를 나

타내어 거부민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용전략을 사용할수록 우울 증상은 감소되고, 타인 비난을 사용할수록 우울 증상은 증가된다는 것을 밝혔다(류혜라, 박기환, 2014).

거부민감성이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보다 연인에게 질투 및 통제적 행동(Downey & Feldman, 1996)과 폭력행동(Downey, Feldman, & Ayduk, 2000)을 많이 나타냈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여성의 경우에는 거부민감성이 낮은 여성보다 거절당했다고 생각될 때 상대방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이지 않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빈번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owney & Feldman, 1996).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반면,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서표현양가성

가. 정서표현양가성의 개념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을 의미한다(King & Emmons, 1990). 이는 단순히 정서를 표현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서표현에 있어 굳이 갈등을 느끼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갈등을 느끼거나 정서표현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표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표현을 억제하는 등 정서표현을 통제하는 것에 필요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Pennebaker, 1989).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서표현 억제의 동기에 따라 자기방어적양가성과 관

계관계적양가성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자기방어적양가성’은 정서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부터 거부되거나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으며, 정서표현 후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서표현에 대한 불능감과 방어적 동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최해연, 민경환, 2007). 반면 ‘관계관계적양가성’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상황과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상관리 및 관계성을 고려하여 정서표현을 통제하고 신중함을 기하는 갈등적 특성을 의미한다(최해연, 민경환, 2007).

이외에도 정서표현양가성을 동일한 사건 혹은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을 교차해서 동시에 느끼는 것으로 정의한 학자도 존재한다(Emmons & Kaiser, 1996).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을 King과 Emmons(1990)가 정의한 정서표현양가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정서표현양가성의 선행연구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우울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며 비표현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및 대인관계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정혜진, 2014).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며(하정, 1997), 우울, 불안, 강박, 신체적 증상, 분열적 사고 경향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주, 홍혜영, 2013).

관계적 측면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이나

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으며(Emmons & Colby, 1995), 문제중심 대처보다는 정서중심 대처나 미성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미, 오경자, 2006).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개인은 자기개방 및 상호작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오충광, 정남운, 2007).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은 대학생의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이정선, 2012), 정서표현양가성 중 특히 자기방어적양가성은 대인관계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미, 2014).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서표현양가성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스트레스에 건강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대인관계문제

가. 대인관계문제의 개념

대인관계문제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Horowitz et al., 1988).

대인관계문제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문제란 상황과 상대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로 하여금 불편감을 유발하여 원활한 대인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정의하였다(Leary, 1957). 또한, 대인관계문제를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로 만족을 추구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 혹은 기술이 부족하

여 만들어지는 부적응적인 대인관계라고 정의하였다(최임정, 심혜숙, 2010).

한편, 인간의 본질적인 과업은 효과적인 대인관계에 있으며, 근본적인 불안은 대인관계의 불안정감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세 가지 신경증적 경향성으로 제시하였다(Horney, 2006).

먼저, 사람들에게 향함(Moving toward people)이다. 이것은 순응형으로 자신은 무력하고 열등하지만, 타인은 우월하고 강하다고 생각하여 타인에게 의존하고 끊임없는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 한다. 또한, 타인에게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 타인의 호감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맞섬(Moving against people)이다. 이것은 공격형으로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고 강함을 느끼기 위해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리고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과도하게 경계하여 타인에게 맞섬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서 멀어짐(Moving away from people)이다. 이것은 고립형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불편감을 느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이들은 타인에 대해 좋고 싫은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의 표현을 억누르며 이성적 사고나 논리를 중시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경향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상황에 맞게 균형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신경증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의 경향성에 집착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Horney, 2006).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를 Horowitz 등(1988)이 정의한 대인관계문제의 개념을 사용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대인관계문제의 선행연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족변인으로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황지영, 2005), 아동기 외상경험(이유경, 2006), 애착(장석진, 연문희, 2009) 등이 있다. 개인변인으로는 완벽주의 성향(정옥경, 2001),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권진희, 2007), 정서표현양가성(이경희, 김봉환, 2010), 내면화된 수치심(최임정, 심혜숙, 2010) 등이 있다.

대인관계문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완벽주의를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여량, 2013).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소형, 2011). 우울취약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아지며(박송이, 2009), 애착의 회피와 불안이 증가할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인성, 2010).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부적응적인 대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나영, 2009).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최임정, 심혜숙, 2010), 초기 부적응 도식의 총점이 높은 대학생이 일상생활에 당면한 과업들을 지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대인관계 상황에서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예원, 2015).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인관계문제는 많은 변인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상담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관련 변인 간의 관계

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한 자기비난, 열등감,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정신병리를 비롯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정혜연, 이지민, 2017).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할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감이 하락하고, 타인의 욕구와 생각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동시에 자기자각 능력의 손상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게 된다(최은영, 안현의, 2011).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을 지닌 개인은 수치심을 느끼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회피적인 대처 행동을 하게 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에게 방어적 이차정서 반응인 분노와 두려움, 슬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장진아, 2006).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수치심에 기초한 부정 정서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장진아, 2006). 즉,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대인관계를 맺게 되어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와 관련한 변인인 외로움, 불안, 철수, 타인비난, 분노 등이 높게 나타났다(남기숙, 2008; 이인숙, 최해림, 2005; 이지연, 200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은 대인관계 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조윤경, 현명호, 202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연, 양난미, 2012).

이를 종합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특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자신감 하락, 회피, 외로움, 타인 비난 등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대인관계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나.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불신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반면,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의 작은 거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Jacoby, 1991).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으면 버림받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는데, 이는 상대방의 거부가 일종의 버림받는 것이라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거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Piers & Singer, 1971). 실제로 거부를 경험하면 자신의 수치심을 재확인하기 때문에 타인의 거부를 예상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거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박현지, 2012).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거부민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진, 2017). 이외에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는 선행요인임을 지지하고 있다(박현지, 2012; 임혜은, 한세영, 2016; 홍진이, 한기백, 2015). 즉, 내면화된 수치심은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를 과민하게 경계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이거나 작은 단서도 거부로 지각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대적 행동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어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정민, 오경자, 2016).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과순응성, 자기희생, 사회적 억제 등의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 2013; 조아라, 2014).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회피와 분산적 양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여정, 201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경, 2016). 즉, 거부에 대해 민감할수록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거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상대방에게 거부당할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는 결국 거부당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에 맞추어 부적절한 행동과 태도로 반응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남기숙, 2008; Gilbert & Miles, 200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대학생들은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거부기대가 높아지면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등의 불편한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쉽게 위축되고, 대인관계문제를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혜련, 김종남, 2016). 또한,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예은, 2018; 이시형, 2018). 즉,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거부민감성이 높아져 거부당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대처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를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감정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묶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방어하게 된다(Bradshaw, 1988). 감정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묶인다는 것은 분노나 슬픔과 같은 부정 정서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긍정 정서를 느낄 때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동반된다는 것이다(서지원, 2018).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미성숙한 방어기제로 인해 정서표현양가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이지연, 2008), 내면화된 수치심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지현, 2018).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참 자기와 거짓 자기를 발생시켜 자기의 통합성을 상실시키며, 이러한 이중성은 정서표현양가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현명호, 2013). 즉,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서문제와 대인관계문제는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강소영, 2009; 이한우, 염동문, 2015). 이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개인이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Carstensen, Gottman, & Levenson, 1995). 그러나 친밀한 관계를 위해 갈등이 생길 것 같은 생각, 감정 및 욕구의 표현을 억제하며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한경희, 2012). 또한, 개인 내적인 경험과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 사이의 불일치로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지 못해 진짜 자기가 아닌 듯한 기분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한다(Gross & John,

200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다혜, 2017; 민지현, 이아라, 2016; 지서현, 2016),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구승희, 2011). 또한, 이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표현이 타인에게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개방이나 상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게 만들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안선경, 2016). 즉, 정서표현양가성을 지닌 사람은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권다은, 2015). 이를 종합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라.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거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된다(남기숙, 2008; Gilbert & Miles, 2000).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도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상대방에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김영환, 2019). 이렇게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친

밀한 관계 형성에 있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타인의 지지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Emmons & Colby, 1995). 이들은 자존감이 낮아 대인관계 상황에서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이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오충광, 정남운, 2007). 그리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생각, 욕구 및 감정의 표현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못할 때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희, 2012). 즉,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거부에 민감해지고, 거부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것은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진이, 한기백, 2015).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선경, 2016). 또한,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정, 2016). 이를 종합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아질수록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아지고, 거부에 민감할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아져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임을 가정하여 구조모형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방 법

본 장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4개의 시도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COVID-19 감염에 대비하여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총 304명이 응답하였으며, 무성의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한 결과 최종 292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는 설문의 목적과 진행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설문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설문을 진행할 수 없는 필수적인 문항을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7-12분 정도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92)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95	32.5
	여성	197	67.5
연령	20세 이상 23세 미만	114	39.1
	23세 이상 25세 미만	109	37.3
	25세 이상	69	23.6
학년	1학년	48	16.4
	2학년	59	20.2
	3학년	63	21.6
	4학년	122	41.8
합계		292	100

2. 측정도구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1987)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는 부적절감(10문항), 공허(5문항), 자기처벌(5문항), 실수불안(4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과 자존감 척도(6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을 측정하는 6문항은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제어하

기 위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를 포함시켜 구성한 것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1점 ‘그런 경우가 없다’에서 5점 ‘거의 항상 그렇다’) 측정된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자존감 문항(4, 9, 14, 18, 21, 28)을 제외한 총 24문항의 합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및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부적절감	1, 2, 3, 5, 7, 8, 10, 11, 12, 24	10	.95
공허	23, 26, 27, 29, 30	5	.95
자기차별	15, 17, 20, 22, 25	5	.89
실수불안	6, 13, 16, 19	4	.84
전체		24	.97

나. 거부민감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명진과 양난미(2017)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및 타당화한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16문항으로 예기분노(5문항), 예기불안(4문항), 과잉반응(4문항), 거부지각(3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명진과

양난미(201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및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거부민감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예기분노	1, 2, 3, 4, 5,	5	.93
예기불안	6, 7, 8, 9	4	.90
과잉반응	10, 11, 12, 13	4	.91
거부지각	14, 15, 16	3	.88
전체		16	.96

다.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자기방어적 양가성(14문항)과 관계관계적양가성(10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에서 5점 '자주 이렇게 느낀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및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정서표현양가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방어적양가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95
관계관여적양가성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0	.86
전체		24	.94

라. 대인관계문제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등(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문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를 Alden 등(1990)이 재구성한 대인관계 원형척도를 홍상황 등(2002)이 표준화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사람들에게 향함(비주장성 5문항, 과순응성 5문항, 자기희생 5문항), 사람들에게 맞섬(통제지배 5문항, 자기중심성 5문항, 과관여 5문항), 사람들에게서 멀어짐(냉담 5문항, 사회적 억제 5문항)으로 총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겪은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상황 등(2002)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및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표 5.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사람들에게 향함	비주장성	1, 3, 5, 11, 16	5	.92	.95
	과순응성	14, 23, 34, 37, 39	5	.90	
	자기희생	20, 24, 25, 32, 40	5	.84	
사람들에게 맞섬	통제지배	19, 21, 27, 30, 33	5	.90	.95
	자기중심성	6, 7, 10, 13, 22	5	.94	
	과관여	26, 28, 29, 35, 38	5	.82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냉담	2, 8, 9, 15, 18	5	.93	.96
	사회적억제	4, 12, 17, 31, 36	5	.91	
전체			40	.97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그리고 대인관계문제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상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통계 분석과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을 순차적인 매개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모형의 적합도와 직·간접 경로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모형은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을 통하여 구성개념이나 잠재변인이 측정변인에 의해 얼마나 적절하게 구인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측정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이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가에 대해 확인하고자 구조방정식의 여러 모형 적합도 지수를 참고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할 수 있는 χ^2 값을 제외한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함께 확인하였다. 이때, TLI와 CFI, NFI는 0.9 이상이면 1에 근접할수록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SRMR은 0.08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과의 간접효과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의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원자료($N=292$)로부터 무선할당으로 만들어진 5,000개의 표본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고,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IV. 결 과

본 장에서는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정상성 가정을 만족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의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는 수치로 왜도 $<\pm 2.0$, 첨도 $<\pm 7.0$ 인 경우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왜도는 자료가 좌우대칭을 잘 이루어 정규성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첨도는 점수 비율이 정규분포곡선에서 중간 혹은 끝부분에 몰려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N=292)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내면화된 수치심 전체	2.62	1.03	.68	-.54
부적절감	2.47	1.08	.78	-.36
공허	2.50	1.24	.56	-.93
자기처벌	2.54	1.09	.58	-.69
실수불안	3.23	0.93	-.02	-.55
거부민감성 전체	2.69	1.12	.37	-.76
예기분노	2.55	1.23	.48	-.93
예기불안	2.60	1.23	.39	-1.00

과잉반응	2.90	1.24	.03	-1.08
거부지각	2.76	1.23	.09	-1.04
정서표현양가성 전체	3.31	0.83	.01	-.54
자기방어적양가성	3.09	1.03	-.07	-.87
관계관계적양가성	3.63	0.74	-.26	-.25
대인관계문제 전체	2.56	0.98	.83	-.04
사람들에게 향함	2.82	1.02	.33	-.77
사람들에게 맞섬	2.34	1.01	1.08	.29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2.51	1.18	.52	-.83

표 6의 결과와 같이 주요 변인의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의 왜도값이 -.26~1.08, 첨도값이 -1.08~.29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변인의 왜도 절대값이 2 이하, 첨도 절대값이 7 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 형성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그리고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 점수 간 상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내면화된 수치심은 거부민감성($r=.83$, $p<.01$), 정서표현양가성($r=.79$, $p<.01$), 대인관계문제($r=.88$,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부민감성은 정서표현양가성($r=.76$, $p<.01$), 대인관계문제($r=.88$,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r=.82$,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N=292)

	1	1-1	1-2	1-3	1-4	2	2-1	2-2	2-3	2-4	3	3-1	3-2	4	4-1	4-2	4-3
1. 내면화된 수치심 전체	-																
1-1. 부적절감	.97**	-															
1-2. 공허	.94**	.88**	-														
1-3. 자기치별	.95**	.88**	.89**	-													
1-4. 실수불안	.83**	.76**	.69**	.77**	-												
2. 거부민감성 전체	.83**	.81**	.77**	.79**	.72**	-											
2-1. 예기분노	.74**	.73**	.69**	.71**	.62**	.91**	-										
2-2. 예기불안	.84**	.81**	.78**	.79**	.73**	.91**	.76**	-									
2-3. 과잉반응	.72**	.69**	.67**	.70**	.65**	.91**	.74**	.80**	-								
2-4. 거부지각	.71**	.69**	.65**	.67**	.63**	.88**	.75**	.76**	.76**	-							
3. 정서표현양가성 전체	.79**	.73**	.74**	.77**	.72**	.76**	.65**	.75**	.72**	.66**	-						
3-1. 자기방어적양가성	.79**	.74**	.76**	.77**	.72**	.80**	.69**	.77**	.77**	.69**	.95**	-					
3-2. 관계관여적양가성	.57**	.53**	.51**	.55**	.54**	.49**	.40**	.51**	.43**	.43**	.82**	.61**	-				
4. 대인관계문제 전체	.88**	.87**	.82**	.84**	.74**	.88**	.80**	.84**	.78**	.77**	.82**	.83**	.57**	-			
4-1. 사람들에게 향함	.83**	.79**	.77**	.79**	.77**	.82**	.73**	.80**	.71**	.72**	.83**	.82**	.64**	.92**	-		
4-2. 사람들에게 맞섬	.81**	.81**	.76**	.77**	.61**	.82**	.80**	.76**	.70**	.72**	.68**	.70**	.44**	.92**	.75**	-	
4-3.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82**	.80**	.77**	.77**	.68**	.81**	.69**	.77**	.77**	.71**	.77**	.80**	.51**	.92**	.80**	.80**	-

** $p < .01$

3.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은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 4개로 지정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하위척도인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 4개를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거부민감성은 하위척도인 예기분노, 예기불안, 과잉반응, 거부지각 4개를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은 자기방어적양가성, 관계관여적양가성 2개를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문제는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3개를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292)

	CMIN (χ^2)	df	TLI	CFI	NFI	SRMR
측정모형	308.05	59	.92	.94	.93	.03

표 8과 같이 측정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df=59, N=292)=308.05$, TLI=.92, CFI=.94, NFI=.93, SRMR=.03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수 추정치 및 비표준화 경로계수를 도식화하여 표 9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9.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N=292)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절감	1.00	.94		
	공허	.56	.93	.01	31.97***
	자기처벌	.50	.94	.01	34.23***
	실수불안	.29	.80	.01	20.65***
거부민감성	예기분노	1.00	.85		
	예기불안	.86	.91	.03	21.90***
	과잉반응	.82	.87	.04	19.97***
	거부지각	.60	.85	.03	19.06***
정서표현양가성	자기방어적 양가성	1.00	.95		
	관계관계적 양가성	.35	.64	.02	12.58***
대인관계문제	사람들에게 향함	1.00	.90		
	사람들에게 맞섬	.95	.86	.04	22.28***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76	.89	.03	24.3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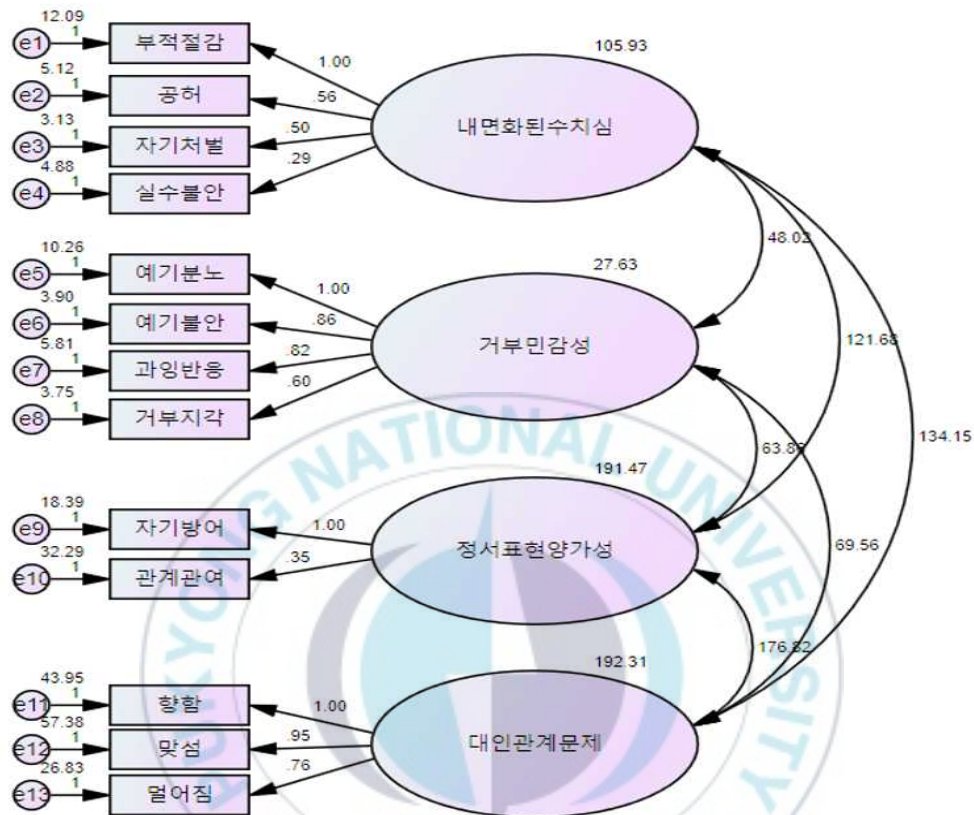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 9 및 그림 2와 같이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계수가 $p < .0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13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기법으로서 모수 추정에 유리한 방법인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N=292)

	CMIN (χ^2)	df	TLI	CFI	NFI	SRMR
구조모형	308.05	59	.92	.94	.93	.03

표 10과 같이 구조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df=59, N=292)=308.05$, TLI=.92, CFI=.94, NFI=.93, SRMR=.03으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수 추정치 및 표준화 경로계수를 도식화하여 표 11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11.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치

(N=292)

경로			B	β	S.E	C.R
내면화된 수치심	→	거부민감성	.45	.89	.02	18.84***
	→	정서표현양가성	.47	.35	.11	4.03***
	→	대인관계문제	.47	.35	.08	5.42***
거부민감성	→	정서표현양가성	1.48	.56	.23	6.20***
	→	대인관계문제	1.12	.42	.20	5.40***
정서표현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25	.25	.07	3.2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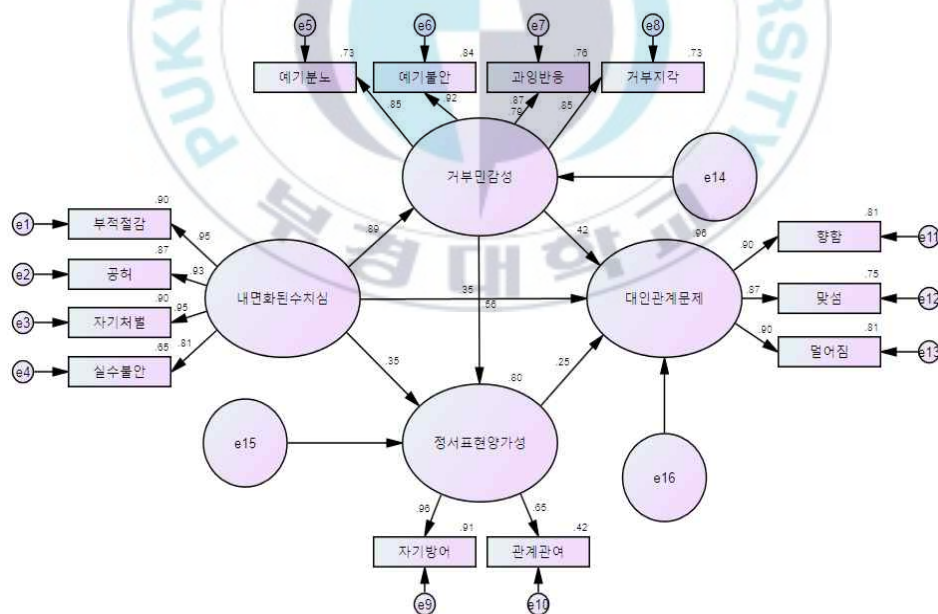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5.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가.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효과 분해 결과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에서 제시된 변인들 간의 효과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추정한 다음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효과 분해 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B)			p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내면화된 수치심	→ 거부민감성	.45	0	.45	***
	→ 정서표현 양가성	.47	.67	1.14	***
	→ 대인관계문제	.47	.79	1.26	***
거부민감성	→ 정서표현 양가성	1.48	0	1.48	***
	→ 대인관계문제	1.12	.37	1.49	***
정서표현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25	0	.25	***

*** $p<.001$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모형의 전체효과, 직·간접효과의 모수치들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총 효과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B=1.49$, $p<.001$), 내면화된

수치심($B=1.26$, $p<.001$), 정서표현양가성($B=.25$, $p<.001$)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총 효과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B=.45$, $p<.001$)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총 효과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B=1.48$, $p<.001$), 내면화된 수치심($B=1.14$, $p<.001$)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수반될 수 있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계	상한계
내면화된 수치심→거부민감성→ 대인관계문제	.42 (.08)	.25	.60
내면화된 수치심→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	.25 (.09)	.08	.45
내면화된 수치심→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대인관계문제	.56 (.10)	.35	.78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

표 13과 같이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면화된 수치심이 거부민감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간접효과는 $B=.42$, 95% 신뢰구간에서 .25~.6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에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간접효과는 $B=.25$, 95% 신뢰구간에서 .08~.45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에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간접효과는 $B=.56$, 95% 신뢰구간에서 .35~.78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에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내면화된 수치심은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 사이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연구(김현진, 2017)와 일치한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양가성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연구(서지원, 2018)와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연구(박수련, 2019)와 일치하는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으면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거부민감성은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안선경, 2016)와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최혜경, 2019)와 일치하는 바이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으면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강은정, 2016)와 일치하는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이 높으면 대인관계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 한다는 연구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 한다는 선행연구(이시형, 20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거부민감성을 통해서도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데,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생각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내담자의 대인관계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거부민감성을 낮출 수 있는 개입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의 특성을 보이는 내담자에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내담자의 회피적 행동을 다루는 것이 대인관계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윤희, 2021). 이를 근거로 상담자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내담자의 거부민감성을 낮추기 위해 내담자에게 반추, 자기비난, 과묵화와 같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특성은 없는지 또는 회피하는 행동 패턴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 표현양가성이 부분매개 한다는 연구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표현양가성이 부분매개한다는 선행연구(권다운,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서도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요인 중 자기방어적양가성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이 대인관계문제를 겪게 되는데,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 부정적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이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여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내담자의 대인관계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정서표현양가성을 낮출 수 있는 개입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온전하게 접촉하고 수용하며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조력하는 것은 상담자의 핵심 과업으로 여겨지고 있다(김요완, 2019). 이에 상담자는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느끼지 못했던 내담자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표현을 갈등하고 억제하는 내담자가 긍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더라도 상담자는 이를 온전히 수용해주고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아질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아져 대인관계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선행연구(강다혜, 2017)와 일치하는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지닌 개인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타인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거부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작은 거부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렇듯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거부당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게 된다.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는 것은 타인과의 진실된 교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문제를 더 겪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내담자의 대인관계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인관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특히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감을 겪는 시기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까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익힐 기회가 많지 않았으며, 대학 입학 후에는 중·고등학교에서와는 다르게 응집력과 구속력이 약한 대인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이다(권석만, 2004). 또한, 대학생들은 대학강의를 들으며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취업 준비 등 여러 가지 평가받는 상황에 노출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 이후에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 내담자 중 내면화된 수치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대학생이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한다면, 이러한 내담자의 거부민감성에 대한 개입이 선행된 후에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상담자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내담자에게 타인에게 거부당할까봐 자신의 진실된 정서표현을 하는데 있어 갈등하고 억제하는 대처가 있는지 살펴본 후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을 순차적으로 개입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집단이 4개의 시도에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여성의 비율이 67.5%로 연구대상자의 성별이 고루 분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성별을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 방식의 검사를 통해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질문지법, 관찰법, 그리고 면접법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측면들의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를 설명하는 인지적, 행동적 변인들을 탐색한다면,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다방면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를 밝히고자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네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 또는 부분적 경로만을 검증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문제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증하여 내담자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내

담자가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할 때,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에 초점을 두어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대인관계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상담자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내담자가 타인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이에 대인관계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이러한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하여 상담자는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의 강도를 낮추고 난 후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대처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가인숙, 현명호 (2006). 역기능적 가정, 수치심, 사회적 지지와 폭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209-223.
- 강다혜 (2017). 성인초기의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소영 (2009).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여정 (2016).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은정 (2016).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지현 (2018).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승희 (2011).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 대학생활 적응 및 대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다은 (2015).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과 분노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04).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진희 (2007).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연, 양난미 (2012). 부모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309-2328.
- 김미나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현명호 (2013).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제시 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61-176.
- 김선미, 홍상황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과 표현능력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3(4), 409-429.
- 김소형 (2011). **직장인의 자아존중감 및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여량 (2013).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201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은 (2018).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요완 (2019). 경청과 대인관계: 자기감정인식과 공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1(3), 475-494.
- 김윤지 (2020).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2021).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성 (2010). **남·여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윤 (2019).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 비난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이지연 (2010).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8(3), 3-14.
- 김주연, 성태훈, 김지혜, 신민영 (2014).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주의력 조절의 조절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21-37.
- 김향선, 이영순 (201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자기격려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18(3), 375-392.
- 김현주, 홍혜영 (2013). 고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181-209.
- 김현진 (2017).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2013). **거절민감성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숙 (2002).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분 문제. **심리과학**, 11(1), 35-52.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 남기숙 (2008). **수치심, 죄책감 경험과 대처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혜라, 박기환 (2014).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203-218.
- 민지현, 이아라 (2016). 대학생의 자기낙담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77-94.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 박민숙 (2014). 여자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 주의조절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1), 35-51.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박선미 (2017).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 양가성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송이 (2009). **우울취약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련 (2019).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정서표현능력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 (2014).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11(1), 121-142.
- 박현지 (2012).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련, 손은정 (201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083-1099.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19). 2019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12, 35-72.

- 서지원 (2018). **내면화된 수치심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봉화 (2011). **내현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경 (2016).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외상관련 정서의 확장: 수치심, 죄책감, 분노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839-854.
- 오충광, 정남운 (2007). 정서표현갈등과 상담자 지각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1), 115-136.
- 윤재호 (2017).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간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0), 253-278.
- 이경희, 김봉환 (2010).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명확성, 정서강도 및 정서주의의 군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69-384.
- 이동욱 (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 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13-128.
- 이시형 (2018).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예진 (2021).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

- 향: 자기격려와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재옥 (2017).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 (2012). **정서표현양가성, 정서조절 양식 및 대학생활의 사회적 적응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08).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9(2), 353-373.
- 이진, 송미경 (2015). 내면화된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8), 264-264.
- 이한우, 염동문 (2015). 대학생의 정서인식과 대인관계 간의 관련성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의 이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1(2), 85-106.
- 임정민, 오경자 (2016). 거부민감성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2(2), 183-195.
- 임혜은, 한세영. (2016).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4), 129-143.
- 장미희, 이지연 (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

- 계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4(1), 35-53.
- 장석진, 연문희 (2009). 애착이론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및 능력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031-2054.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자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 장주혜 (2019).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진아 (2006). **여성의 대상관계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하진 (2021). **초기성인기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련, 이지연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2), 5-18.
- 정소현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자기침묵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예원 (2015). **초기부적응도식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연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경 (2001). **완벽주의 성향이 불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미 (2014). **대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의사소통 유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혜, 정남운 (2015). 거절민감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339-360.
- 정혜연, 이지민 (2017).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169-184.
- 정혜진 (2014).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아라 (2014). **대학생의 거절불안과 거절기대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운경, 현명호 (2020).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반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1), 207-223.
- 지서현 (2016). **정서표현신념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혜련, 김종남 (2016).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및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3(12), 373-401.
- 최은영, 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02.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최혜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최혜경 (2019). **대학생의 분리-개별화 문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 (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경희 (2012).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예원 (2020). **사회초년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정서표현양가성의 관계: 거절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이중 매개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진이, 한기백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5), 367-389.
- 황예은, 이지민 (2020).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과 공감능력의 이중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2), 3-22.
- 황지영 (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완벽주의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521-536.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Basic Books. New York: Basic Books.
- Bradshaw, J. (1988). *Healing the Shame that Binds You*.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Incorporation.
- Carstensen, L. L., Gottman, J. M., & Levenson, R. W. (1995). Emotional behavior in long-term marriage. *Psychology and Aging*, 10(1), 140-149.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 Cook, D. R. (1991). Shame, attachment, and addiction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3(5), 405-419.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i Health System.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2.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 Emmons, R. A., & Kaiser, H. A. (1996). Goal orient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Linking Goals and Affect through the self. In L. L. Martin., & A. Tesser (Eds.), *Striving and feeling: Interactions among goals, affect, and self-regulation* (p. 424). New Jersey: Erlbaum.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 Feldman, S. I.,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Gilbert, P., & Miles, J. N. (2000). Sensitivity to Social Put-Down: it's relationship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shame, social anxiety, depression, anger and self-other blam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4), 757-774.
-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 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713-717.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orney, K. (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Our Inner Conflicts]. (이희경, 윤인, 이해리, 조한익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2년에 출판).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acoby, M. (1991). *Shame and the origins of self-esteem*. London: Routledge.
- Kaufman, G. (2004).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Press.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terpersonal Rejection, 10*, 251-289.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Pennebaker, J. W. (1989). Confession, inhibition, and diseas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211-244.
- Piers, G., & Singer, M. B. (1971). *Shame and guilt: A psychoanalytic and a cultural stud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Robert,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10 - 320.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2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56 - 75).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김 다 연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지도교수: 천성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4개의 시도에 소재한 대학생 3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무성의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한 292부의 온라인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SPSS 25.0와 AMOS 20.0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의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문제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상담기술 및 훈련 등의 개입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지닌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및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

부록 1.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 다음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조사하는 설문지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그 런 경 우 가 없 다	가 끔 그 렇 다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거 의 항 상 그 렇 다
1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쩐지 내쳐진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체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스스로를 비웃고 자신을 얕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결코 이상(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자신이 매우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자부심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부적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간으로서 뭔가 결함이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아주 무섭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이 내 결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8	대체적으로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실수를 하면 나는 움추려 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압도되고 만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때로 내가 수천조각으로 부서질 것 같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4	때로 나는 콩알처럼 아주 작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5	때로 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을 때 땅이 열려 나를 삼켜버렸으면 싶다.	①	②	③	④	⑤
26	내 안에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괴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의 외로움은 텅빈 공허감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거부민감성 척도

※ 다음은 거부민감성을 조사하는 설문지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제시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만일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상상하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데이트 신청이 거절당한다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3	결국 나를 떠날 것이라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4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툼을 때,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데이트 신청이 거절당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데이트 신청은 거절당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SNS나 메신저로 연락을 했을 때 답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배신당하거나 버려질까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다시는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앞으로는 깊은 관계를 맺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거부당할 것이라 생각되면 거리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3	거부당할까봐 관계를 먼저 끊으려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앞에서 문을 쾅 닫고 나간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3.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 다음은 정서표현양가성을 조사하는 설문지입니다. 아래에는 평소 가질 수 있는 행동과 생각들에 관한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평소 자신의 상태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 ————— 2 ————— 3 ————— 4 ————— 5

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자주 이렇게
느낀다

	문 항	응 답				
		①	②	③	④	⑤
1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웬지 망설여진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두려움이나 분노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서적 반응을 좀더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을	①	②	③	④	⑤

	드러내고 싶지만 상처받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					
11	나의 애정을 좀 더 겉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했더라면 하고 회상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감정들을 감춰두려 하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화를 참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15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때때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싶더라도 나는 언제나 기분을 다스리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화나서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더라도, 말없이 부루통해 있는 것은 피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조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21	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당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의 부정적인 느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남자친구/여자친구가 알았으면 하면서도, 남자친구/여자친구에 대한 질투심을 억누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4	실제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항상 웃음을 유지하려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4.

대인관계문제 척도

※ 다음은 대인관계문제를 조사하는 설문지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상시 자신의 경험이나 기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요구라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19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받아주기가 싫다.	①	②	③	④	⑤
23	너무 잘 속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6	너무 존경받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주 조종하거나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9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①	②	③	④	⑤
30	의견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①	②	③	④	⑤
31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 도와주려고 너무 나선다.	①	②	③	④	⑤
33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35	늘 주목 받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뚜렷한 주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끌려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8	다른 사람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